

안전제일업체 ‘(주)한국중전기’ “내 자신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주)한국중전기는 1971년 10월 10일 설립된 중장비 수리 전문회사다. 기어와 모터 등의 중장비에 대한 수리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입고해서 분해한 후 점검에 들어간다. 수리할 부분은 수리, 세척, 가공, 조립, 시험 등의 단계를 거쳐 다시금 의뢰업체에 보내진다. 또한 업체로 직접 찾아가 중장기의 수명 및 위험요소를 점검해주는 'Before 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중장비를 다루는 업체의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현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의뢰 업체의 중장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정책을 철저히 세우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취재 | 임동희 기자



매일 진행되는 안전교육 ‘안전 지키미’

(주)한국중전기 장지원 대표이사는 “내 자신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안전을 항상 강조한다. 또한 관리자와 직원들도 안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한다. 회사 자체의 안전마인드가 높은 것이 이곳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주)한국중전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는 장기근속자가 많다. 보통 10년, 많으면 20~30년의 경험을 갖다보니 이곳 중장비 수리쪽에서는 노하우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작업 시 안전사고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들에게도 매일 아침에 별도의 ‘위험인지’ 교육이 수시로 이뤄진다. 현실적인 교육을 위해 반별로 매일 10분 정도 진행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리자들도 항상 작업현장을 돌며 위험요소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부업체의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보호구 등 개인장비도 매일 사전점검

안전점검 부분도 확실하다. 사전에 아차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발견 즉시 안전담당자 및 대표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다칠만한 위험요소는 주 단위와 월

단위로 공식적으로 보고되며,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정조치 된다.

아울러 직원들의 안전화, 보호구,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보호장비도 매일 사전 점검한 후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태가 안 좋거나 작업환경에 안 맞는 것이 있다면 작업장의 판단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 후 지급된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이런 일상적이고 세세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크레인 등 중장비의 경우도 자체적으로는 주 1회, 용역업체를 통해서 월 1회 보수 점검된다. 압력용기의 경우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있다.

운반시스템이 확고한 것도 이곳 현장의 자랑이다. 중장비들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우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량물은 대부분 크레인 등의 이동장비에 의해 이동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와이어도 하중보다 비교적 큰 것을 사용하는 등 자칫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해 놓고 있다.

안전전문기관과의 공조체제

이곳은 중소기업의 사업장이다 보니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전문기관의 안전에 대한 노하우와 자체의 안전 시스템이 접목되면서 작업환경에 맞는 최선의 안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최근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앞으로 안전진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사업의 비전을 추구한다는 전략차원에서다.

외부출장자들의 안전도 책임진다

(주)한국중전기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업체의 특성상 Before점검은 의뢰업체 현장에서 이뤄진다. 이때에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 사고의 확률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외부 출장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관리팀 양희준 과장은 "지금까지 외부출장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지침은 있었지만, 세밀한 것은 없었다"라며 "앞으로 각각의 작업환경과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과 외부 출장자들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습득·인지하고, 그 현상에 맞는 안전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적이고 꾸준한 안전관리문화, 그리고 회사의 안전마인드가 이곳을 지금까지 튼실한 안전현장으로 만들어놓았다. 하지만 (주)한국중전기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좀 더 체계적, 좀 더 전문적인 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현장이 되려한다. 지금까지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했던 (주)한국중전기의 모습을 볼 때 NO.1이라는 이 목표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태영 (주)한국중전기 생산이사

저희 업체는 그동안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의 요인들은 바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부분을 즉시 제거하는 쪽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진단과 예방보수 쪽을 강화해나가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꾸준히 점검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회사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대 사고는 한 건도 없어왔지만, 모터 전동들을 분해할 때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작업장에서 가장 크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협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 스스로가 안전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